

## 보도자료

|      |   |
|------|---|
| 보도일시 | 2018년 3월 30일(금) 09:30   |
| 담당자  | 권경덕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실장<br>(044-550-4188, kdkwon@kdi.re.kr)<br>황금물결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1팀 연구원<br>(044-550-4225, gyul.hwang@kdi.re.kr) |
| 배포일시 | 2018년 3월 30일(금) 09:00   |
| 배포부서 | 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  |

# 한·베트남 상생협력과 민간투자 순풍 분다

## KDI, 2017/18년도 베트남 KSP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 개최

- KDI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3월 28~29일 베트남 정부청사에서 응우옌 쑤언 폭 베트남 국무총리, 부득담 사회문화·교육·과학기술 부총리, 리짱만 기획투자부 차관, 윤대희 KSP 수석고문(전 국무조정실장), 주베트남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'2017/18년도 베트남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(KSP)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'를 개최
- 윤대희 수석고문을 포함한 한국 대표단은 양일간 열린 베트남 국무총리와 부총리 등 고위인사와의 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를 통해 KSP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을 전하고,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함.1)

1) KDI는 2004년 KSP 사업 첫 해부터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, '2011~2020 베트남 사회경제개발전략 (SEDS)'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을 포함, 수출입은행 설립방안과 수출지원 금융정책, 과학기술연구소 설립방안 등 58건의 정책자문을 실시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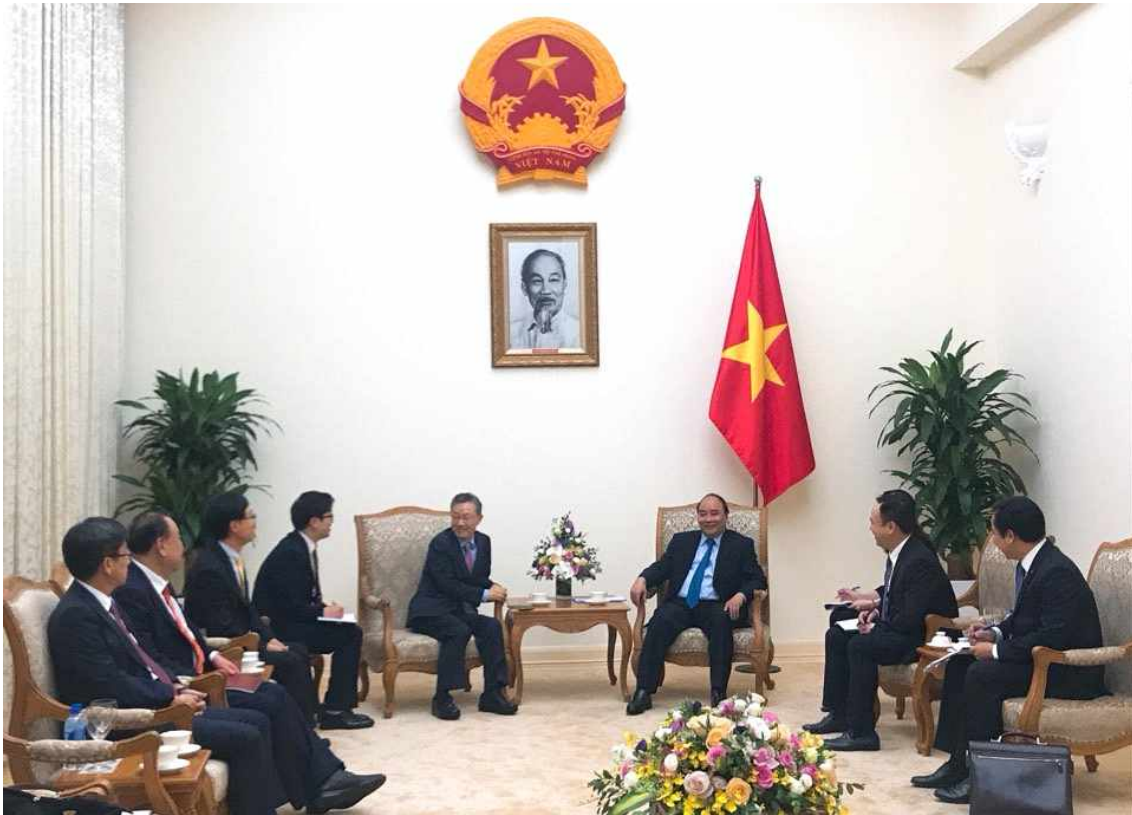
- 최근 한·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재의 ‘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’ 격상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번 고위정책대화는 그간 KSP를 통해 양국 정부와 전문가가 참여한 지식공유 성과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정책제언의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음.
- 윤대희 수석고문은 앞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한·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(V-KIST)<sup>2)</sup> 착공식을 언급하며, “양국 경제협력의 핵심가치인 ‘상생협력’과 ‘미래성장 협력’의 뜻을 담고 있다”고 강조하고 “신남방 정책의 핵심거점국으로서 양국 정부 간 협력의지가 민간투자자로 이어지는 데 KSP가 기여하기를 희망한다”고 밝힘.
- 응우옌 쑤언 폭 총리는 지난주 문 대통령 방문을 통해 “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”고 강조하고, “KSP를 매개로 지속적으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”며 높은 관심을 표함.
- 부득담 부총리는 유의미한 정책제언을 도출한 KSP에 감사를 표하고, “베트남의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며, 특히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지식공유가 우선돼야 한다”며 KSP의 의의를 평가
- 권경덕 KDI 정책자문실장은 “KSP가 정책단위의 지식공유를 통해 우호적 경험 기반을 확장하는 포괄적 협력사업”임을 강조하고, “특히 베트남은 최대투자국이라는 점에서 교역 확대나 민간부문 개발에 KSP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힘.
- 이어서 진행된 베트남 KSP 최종보고회에서는 직업훈련과 기업발전 연계성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방안과 WTO·FTA 체제에서의 무역기술장벽(TBT, Technical Barriers to Trade) 대응방안에 관한 양국 전문가 간 공동연구 결과가 소개됨.

2) KDI는 2012년도 베트남 KSP를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모델을 벤치마킹한 과학기술연구원 설립방안에 관한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한 바 있음.

- 먼저, 숙련인력 양성의 직업기술교육훈련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-학습병행제,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한국 사례를 통한 기업의 직업교육훈련 모델 개발, 산업별 인력수요 조사에 필요한 체계 정비,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 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음.
- 또한, 2007년 WTO에 가입한 베트남이 무역기술장벽(TBT)으로 인한 수출입 제약을 해소하고, 기술표준 관련 통상마찰 및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TBT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, 기술규정 및 표준규격에 대한 정부 내 협력체계 모색, TBT 대응을 위한 방법론과 시스템 구축, 전기·전자산업 표준화 등의 청사진을 제시함.
- 르영 반 코이 베트남 사회경제정보전망센터 원장대행은 “숙련인력 양성과 무역기술장벽 대응은 기업성장의 촉진제이자 베트남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”라며, “지난 1년의 공동연구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크게 도움될 것”이라고 평가
- 최종보고회에서 베트남 정부관계자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정된 정책연구결과는 2018년 하반기에 보고서로 발간,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임.

❖ **별첨. 베트남 KSP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 사진**

❖ 별첨.



3월 29일 총리 접견실에서 윤대희 KSP 수석고문과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총리가 고위정책대화를 통해 그간 KSP 성과를 평가하고, 양국의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했다. (왼쪽부터) 이희진 교수, 어수봉 교수, 이창재 연구위원, (현지통역사), 윤대희 수석고문, 응우옌 쉰언 폭 총리



3월 29일 총리 접견실에서 윤대희 KSP 수석고문(왼쪽에서 다섯 번째)과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총리(여섯번째)가 고위정책대화를 통해 그간 KSP 성과를 평가하고, 양국의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했다.



3월 29일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르엉 반 코이 베트남 사회경제정보전망센터 원장대행 등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KSP 최종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. (왼쪽 하단부터 반시계방향으로) 이창재 KDI 연구위원, 이미연 주베트남한국대사관 총영사, 윤대희 수석고문(전 국무조정실장), 르엉 반 코이 원장대행, 어수봉 교수, 이승 교수, 방호경 KDI 전문위원, 장용준 교수, 팜 티 투짱 박사, 응우옌 티 투이 짱 박사, 이희진 교수, 당득안 박사, 윤동열 교수, 응우옌 흐엉 박사